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특성

Vol. 1
2022. 10

CONTENTS

요약서	03
1. 들어가는 말	07
2. 분석데이터	07
3. 일반현황	08
1) 코스닥 상장기업 수	
2) 시가총액	
3) 소재지	
4) 업력	
5) 설립부터 상장까지 소요기간	
6) 상시 종업원	
7) 업종	
8) 대표자 성별	
4. 재무현황	14
1) 수익성	
2) 안정성	
3) 성장성	
5. 연구개발현황	17
1) 지식재산권 등록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6. 마치며	18

요약서

일반현황

(단위 : 개사)

- 전체상장기업
- 유효벤처기업
- 벤처이력기업
- 일반기업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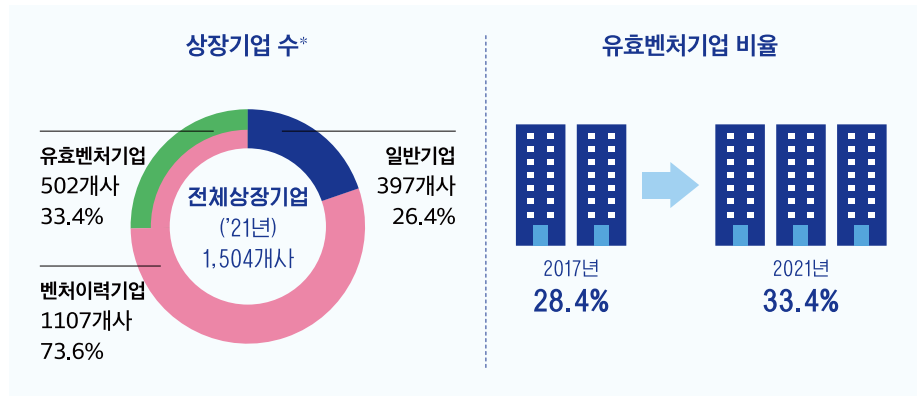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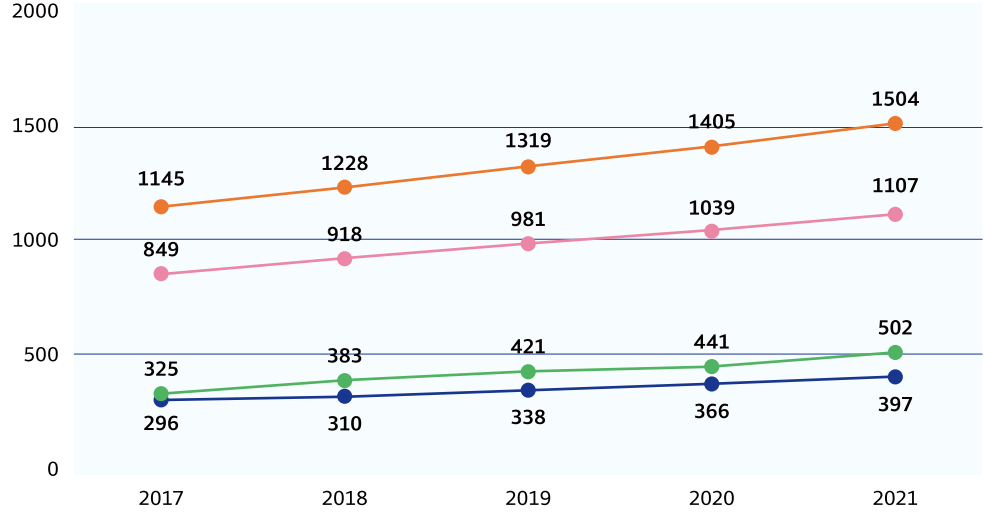
- 유효벤처기업
- 벤처이력기업
- 일반기업

* 전체상장기업 =
벤처이력기업 + 일반기업
* 벤처이력기업 내에
유효벤처기업이 포함됨

상장기업 수

'21년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중 '벤처이력기업' 1,107개사(73.6%)

- 코스닥 상장기업 중 '유효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17년 28.4% → '21년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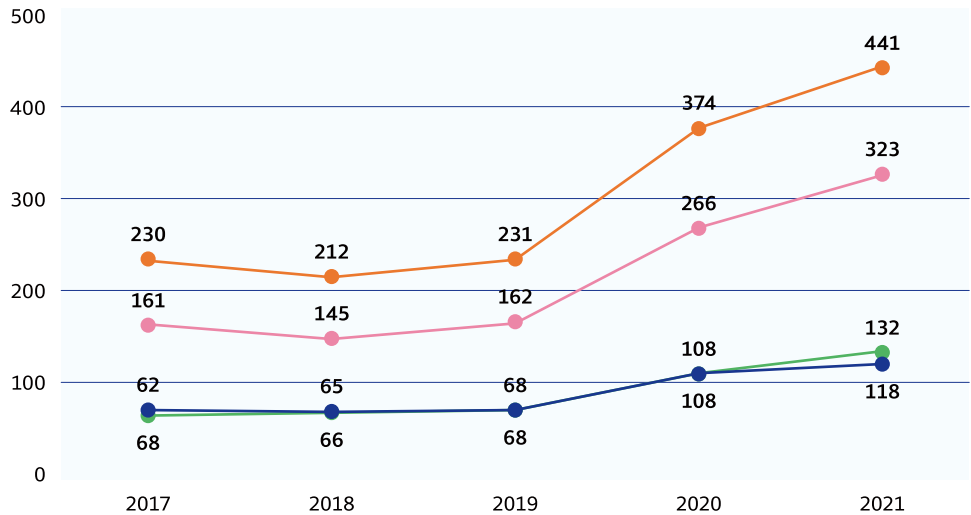


시가총액

2021년 말 기준, '벤처이력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323조원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

(단위 : 조원)

- 전체상장기업
- 유효벤처기업
- 벤처이력기업
- 일반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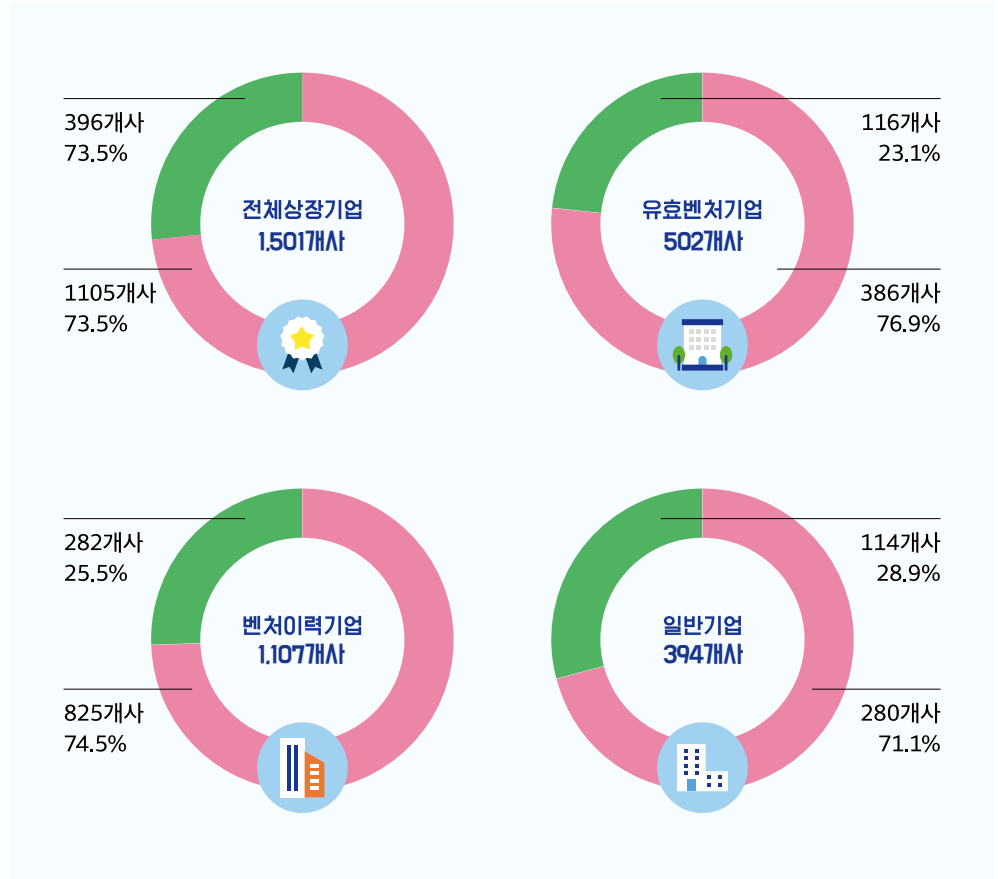


소재지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각각 **77%, 75%**로, **일반기업(71%)**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

(단위 : 개사)

■ 수도권
■ 비수도권



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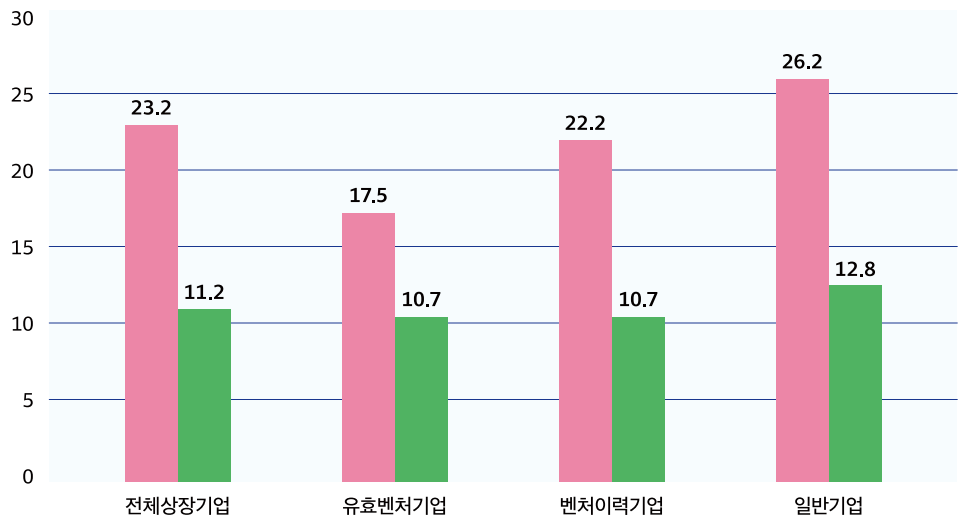
2021년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업력은 **평균 23.2년**이고,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은 각각 **17.5년**과 **22.2년**으로 전체 평균인 **23.2년**보다 업력이 짧음

상장 소요기간

’21년 말 기준, ‘벤처이력기업’은 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0.7년**이 소요되어, ‘일반기업’ **12.8년**에 비해 상장에 적은 기간이 소요

(단위 : 년)

■ 업력
■ 상장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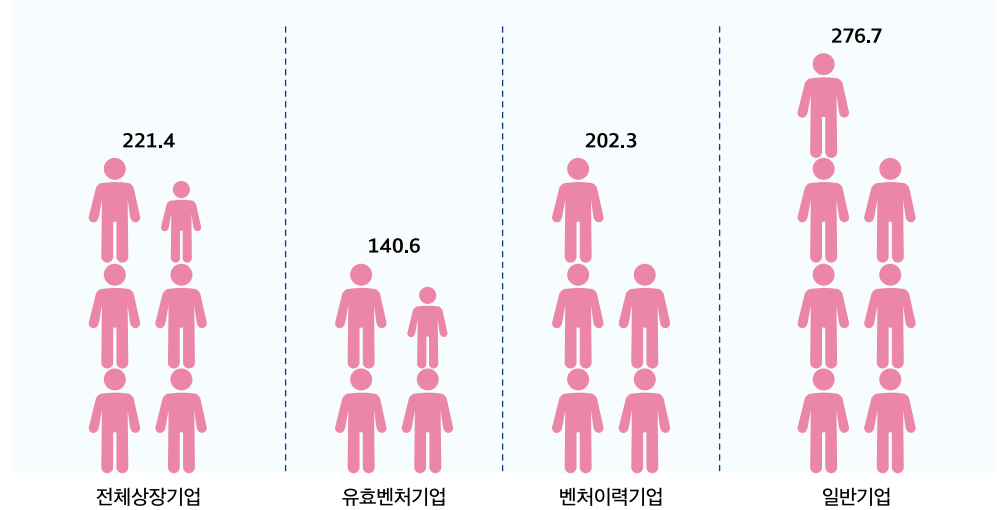


상시 종업원

'21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의 상시 종업원 평균은 140.6명, '벤처이력기업'은 202.3명으로, 일반기업 평균 276.7명에 비해 다소 적음

(단위 : 명)

상시 종업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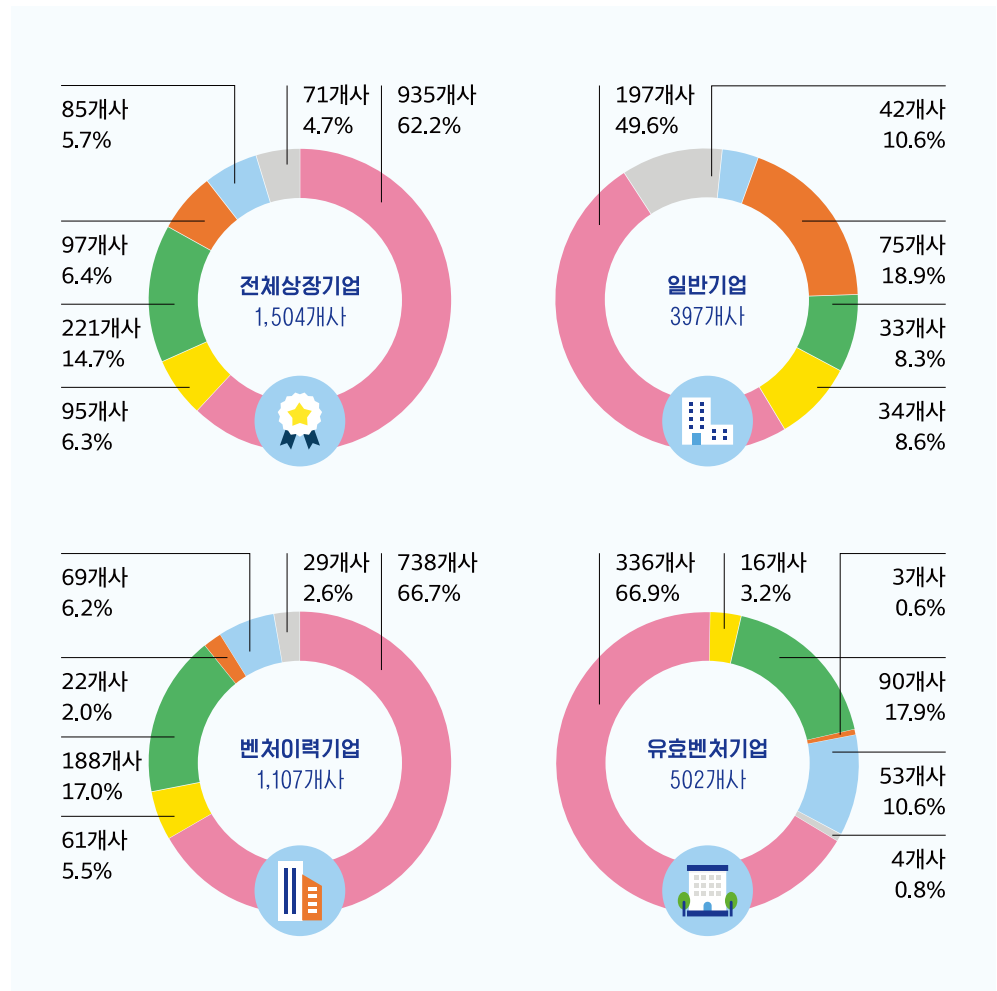
업종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효벤처기업'(66.9%)과 '벤처이력기업'(66.7%)이 '일반기업'(49.6%)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음

-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기업'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개사)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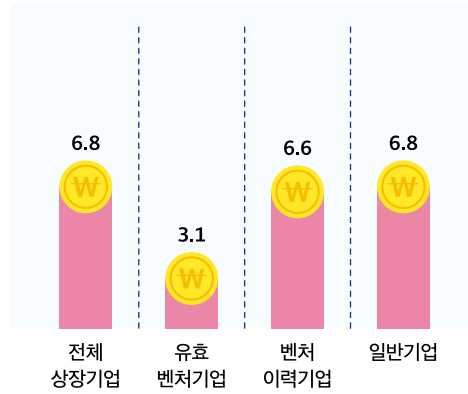
재무현황

(단위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
- 매출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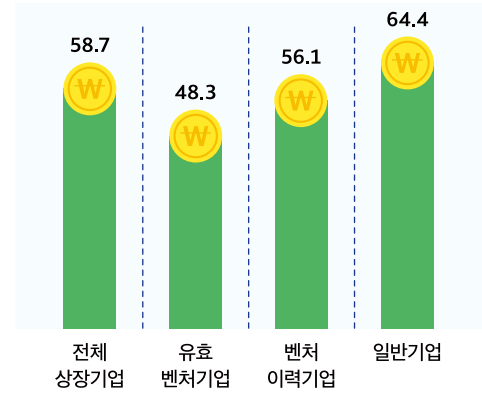
수익성

'21년말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벤처이력기업'(6.6%)과 '일반기업'(6.8%)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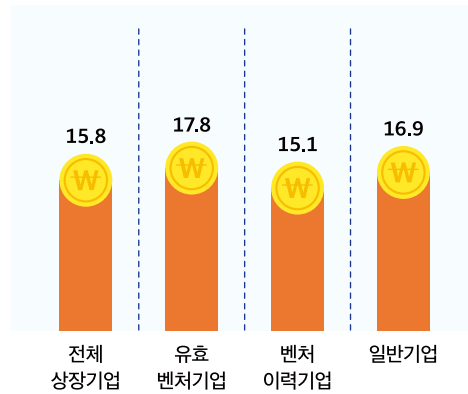
안정성

'21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벤처이력기업'이 56.1%로 '일반기업' 64.4%보다 8.4%p 낮게 나타남



성장성

'21년말 기준 매출액 증가율은 '벤처이력기업'(15.1%)과 '일반기업'(16.9%)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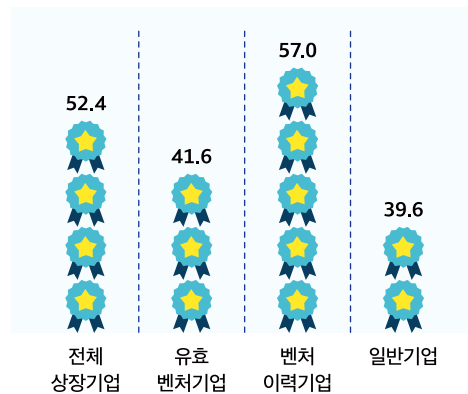
연구개발현황

(단위 : 건, %)

- 평균 지식재산권수(건)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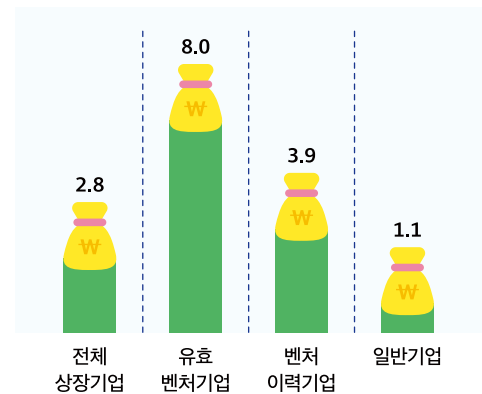
지식재산권

'21년 말 기준, '벤처이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수는 평균 57건으로, '일반기업' 평균 39.6건에 비해 17.4건 많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1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은 평균 8.0%로, '일반기업' 평균 1.1%에 비해 6.9%p 높음



1. 들어가는 말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과 1997년 벤처기업법 제정으로 벤처활성화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2021년 2월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 및 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었다.

1998년 제도 시행 이후 벤처기업확인 이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거래소 상장현황을 살펴보면, '21년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83개사(10.2%), 코스닥시장 1,107개사(73.6%), 코넥스시장 113개사(92.6%)가 상장되어 있다.

[표 1] 거래소 상장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확인 이력기업	83	10.2%	1,107	73.6%	113	92.6%
전체 상장기업	816	100%	1,504	100%	122	100%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특히, 코스닥 시장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을 우대받을 수 있다¹⁾

이처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더 나아가 코스닥 시장에 참가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는 기회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성공하는 기업을 판단하는 여러 척도 중 하나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기업 내에서 나타난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데이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도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보유한 벤처기업DB를 활용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 리스트 및 재무정보 등은 한국평가데이터(KoDATA)²⁾에서 연계·활용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도 포함되어 있다.

본 자료를 연도별로 ①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② 각 연도말 기준 유효한 벤처확인기업, ③ 벤처확인이력이 있는 기업(1998년~2021년말 기준), ④ ③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일반현황, 재무현황, 연구개발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1) 추가적인 우대사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우대지원제도에서 확인 가능(<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2) 국내에 법인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등기된 법인만 포함됨

3. 일반현황

1) 코스닥 상장기업 수

최근 5년간 코스닥 상장기업 중 각 연도 말 당시 유효한 벤처확인기업(이하 '유효벤처기업')은 평균 약 31.3%, 현재까지 벤처확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이하 '벤처이력기업')을 포함하면 평균 약 74.2%를 차지했다.

'유효벤처기업수'와 '벤처이력기업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각각 502개사(33.4%), 1,107개사(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코스닥 상장기업수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A=B+C)	1,145	1,228	1,319	1,405	1,504
일반기업(B)	296	310	338	366	397
벤처이력기업(C)	849	918	981	1,039	1,107
유효벤처기업(D)	325	383	421	441	502

2021년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연구개발유형(32.3%), 벤처투자유형(20.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21년도 말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유형별 비율과 비교하면 연구개발유형과 벤처투자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유형 현황('21년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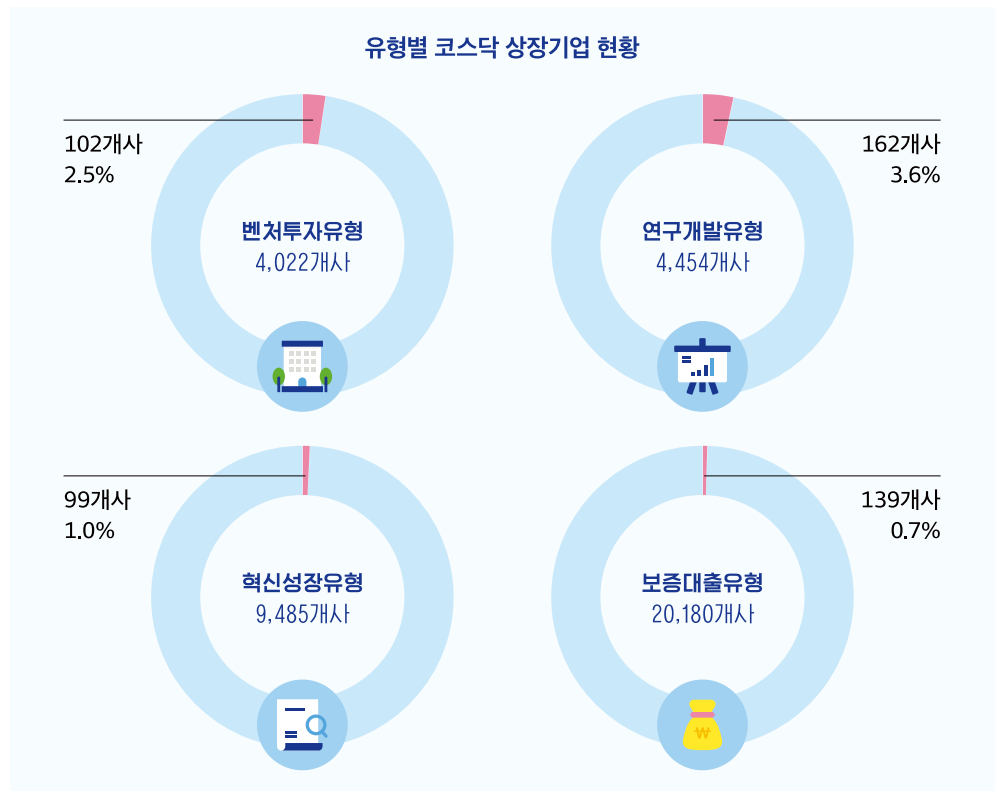
(단위 : 개사)

구분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1.2월 신설)	보증대출유형('21.2월 폐지)	합계
유효벤처기업	102	162	99	139	502
전체벤처기업	4,022	4,454	9,485	20,180	38,141

* 예비벤처유형 제외

(단위 : 개사)

- 유효벤처기업
- 전체벤처기업



2) 시가총액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2018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1년 기준, '벤처이력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323조원(73.2%)으로 가장 크지만, 합계를 기업 수로 나눈 기업당 평균 시가총액은 '일반기업'이 2,974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4] 코스닥 시가총액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 (A=B+C)	소계	230조원	212조원	231조원	374조원	441조원
	평균	2,005억원	1,724억원	1,749억원	2,661억원	2,935억원
일반기업(B)	소계	68조원	66조원	68조원	108조원	118조원
	평균	2,313억원	2,143억원	2,019억원	2,962억원	2,974억원
벤처이력기업 (C)	소계	161조원	145조원	162조원	266조원	323조원
	평균	1,898억원	1,582억원	1,655억원	2,556억원	2,921억원
벤처기업 유효벤처기업 (D)	소계	62조원	65조원	68조원	108조원	118조원
	평균	1,914억원	1,707억원	1,606억원	2,446억원	2,630억원

3) 소재지 현황

상장기업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17년 71% → '21년 7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각각 77%, 75%로, 일반기업(71%)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소재지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전체 상장기업 (A=B+C)	일반기업(B)	벤처						
			벤처이력기업(C)	유효벤처기업(D)					
2017	수도권	813	71%	191	65%	622	73%	245	75%
	비수도권	329	29%	102	35%	227	27%	80	25%
2018	수도권	882	72%	202	66%	680	74%	294	77%
	비수도권	343	28%	105	34%	238	26%	89	23%
2019	수도권	950	72%	226	67%	724	74%	318	76%
	비수도권	366	28%	109	33%	257	26%	103	24%
2020	수도권	1,021	73%	252	69%	769	74%	335	76%
	비수도권	381	27%	111	31%	270	26%	106	24%
2021	수도권	1,105	74%	280	71%	825	75%	386	77%
	비수도권	396	26%	114	29%	282	25%	116	23%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포함되었고, 비수도권은 그 외 지역임

** 각 연도별로 3개 기업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함

또한, '21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벤처확인기업과 비교하면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수도권 소재 기업의 비율이 각각 14.9%p, 12.9%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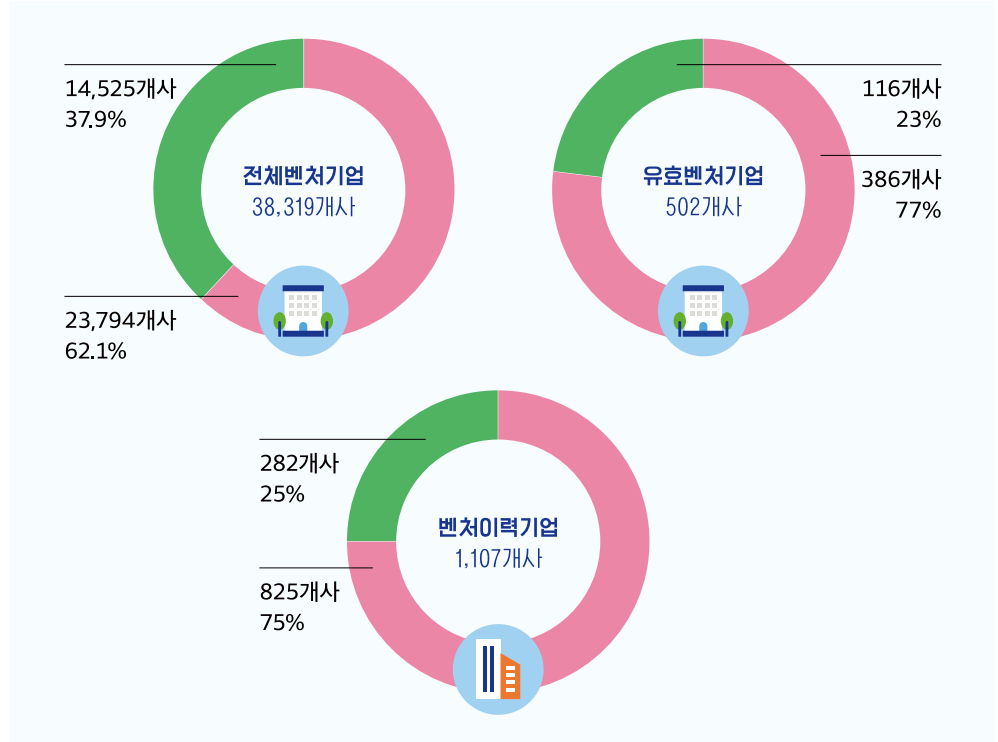
[표 6] 소재지 현황('21년도 말 기준)

(단위 : 개사)

전체 벤처기업		유효벤처기업		벤처이력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3,794	62.1%	14,525	37.9%	386	77%	116	23%	825	75%	282	25%

(단위 : 개사)

■ 수도권
■ 비수도권



4) 업력

연도별로 변동이 크지 않아 2021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상장기업의 업력은 평균 2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업력은 각각 17.5년과 22.2년으로 '일반기업'의 업력 평균(26.2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업력 현황('21년도 말 기준)

(단위 : 개사)

구분	전체 상장기업 (A=B+C)		일반기업(B)		벤처			
	개사	평균(년)	개사	평균(년)	벤처이력기업(C)	평균(년)	유효벤처기업(D)	평균(년)
3년미만	71	4.7	63	15.9	8	0.7	7	1.4
3년이상~7년미만	97	6.4	28	7.1	69	6.2	60	12.0
7년이상~10년미만	67	4.5	13	3.3	54	4.9	44	8.8
10년이상~15년미만	138	9.2	27	6.8	111	10.0	81	16.1
15년이상~20년미만	178	11.8	28	7.1	150	13.6	86	17.1
20년이상	953	63.4	238	59.9	715	64.6	224	44.6
합계	1,504	100.0	397	100.0	1,107	100.0	502	100.0
평균		23.2년		26.2년		22.2년		17.5년

5) 설립부터 상장까지 소요기간

연도별로 변동이 크지 않아 2021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상장기업은 법인설립부터 상장까지 평균 11.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업력과 유사하게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상장까지 소요기간(각 10.7년)이 ‘일반기업’(12.8년) 보다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설립부터 상장까지 소요기간 현황('21년도 말 기준)

(단위: 개사)

구분	전체 상장기업 (A=B+C)		일반기업(B)		벤처			
					벤처이력기업(C)		유효벤처기업(D)	
3년미만	241	16.0%	121	30.5%	120	10.8%	76	15.1%
3년이상~7년미만	275	18.3%	29	7.3%	246	22.2%	77	15.3%
7년이상~10년미만	250	16.6%	28	7.1%	222	20.1%	95	18.9%
10년이상~15년미만	313	20.8%	55	13.9%	258	23.3%	123	24.5%
15년이상~20년미만	227	15.1%	70	17.6%	157	14.2%	90	17.9%
20년이상	198	13.2%	94	23.7%	104	9.4%	41	8.2%
합계	1,504	100.0%	397	100.0%	1,107	100.0%	502	100.0%
평균	11.2년		12.8년		10.7년		10.7년	

6) 상시 종업원

연도별로 변동이 크지 않아 2021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상시 종업원은 221.4명으로 나타났다. 상시 종업원 평균은 ‘일반기업’(276.7명), ‘벤처이력기업’(202.3명), ‘유효벤처기업’(14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상시 종업원수 현황('21년도 말 기준)

(단위: 개사)

구분	전체 상장기업 (A=B+C)		일반기업(B)		벤처			
					벤처이력기업(C)		유효벤처기업(D)	
50명미만	259	17.2%	101	25.4%	158	14.3%	69	13.7%
50명이상 100명미만	331	22.0%	70	17.6%	261	23.6%	155	30.9%
100명이상 200명미만	402	26.7%	77	19.4%	325	29.4%	179	35.7%
200명이상 300명미만	210	14.0%	56	14.1%	154	13.9%	67	13.3%
300명이상 400명미만	111	7.4%	28	7.1%	83	7.5%	21	4.2%
400명이상	191	12.7%	65	16.4%	126	11.4%	11	2.2%
합계	1,504	100.0%	397	100.0%	1,107	100.0%	502	100.0%
평균	221.4명		276.7명		202.3명		140.6명	

7)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대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변동이 크지 않아 2021년을 대표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효벤처기업'(66.9%)과 '벤처이력기업'(66.7%)이 '일반기업'(49.6%)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기업'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업종 현황(KSIC 대분류, '21년도 말 기준)

(단위 : 개사)

업종구분(대분류)	전체 상장기업 (A=B+C)		일반기업(B)		벤처			
	개사	비율	개사	비율	벤처이력기업(C)	비율	유효벤처기업(D)	비율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0.2%	-	-	3	0.3%	1	0.3%
B. 광업	2	0.1%	2	0.5%	-	-	-	-
C. 제조업	935	62.2%	197	49.6%	738	66.7%	336	66.9%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1%	-	-	1	0.1%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0.4%	3	0.8%	3	0.3%	1	0.2%
F. 건설업	30	2.0%	19	4.8%	11	1.0%	2	0.4%
G. 도매 및 소매업	95	6.3%	34	8.6%	61	5.5%	16	3.2%
H. 운수 및 창고업	5	0.3%	4	1.0%	1	0.1%	-	-
I. 숙박 및 음식점업	3	0.2%	3	0.8%	-	-	-	-
J. 정보통신업	221	14.7%	33	8.3%	188	17.0%	90	17.9%
K. 금융 및 보험업	97	6.4%	75	18.9%	22	2.0%	3	0.6%
L. 부동산업	2	0.1%	1	0.3%	1	0.1%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	5.7%	16	4.0%	69	6.2%	53	10.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	0.6%	5	1.3%	4	0.4%	-	-
P. 교육 서비스업	8	0.5%	3	0.8%	5	0.5%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0.1%	2	0.5%	-	-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	-	-	-
합계	1,504	100.0%	397	100.0%	1,107	100.0%	502	100.0%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금융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표 11] 업종 현황(KSIC 중분류, '21년도 말 기준)

(단위: 개사)

전체 상장기업(A=B+C)			일반기업(B)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7	14.4%	64. 금융업	69	17.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2	10.8%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1	7.8
58. 출판업	129	8.6%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6.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	6.8%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5.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7	5.8%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5.3
64. 금융업	86	5.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5.0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83	5.5%	24. 1차 금속 제조업	19	4.8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6	5.1%	41. 종합 건설업	13	3.3
70. 연구개발업	52	3.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3.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	3.4%	10. 식품품 제조업	11	2.8
합계	1,504		합계	397	
벤처					
이력기업(C)			유호벤처기업(D)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4	17.5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5	14.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13.6	58. 출판업	69	13.7
58. 출판업	123	11.1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65	12.9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94	8.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4	12.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2	5.6	70. 연구개발업	44	8.8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5	5.0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7	7.4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4.7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	5.4
70. 연구개발업	49	4.4	28. 전기장비 제조업	20	4.0
28. 전기장비 제조업	38	3.4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4	2.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2.8	10. 식품품 제조업	11	2.2
합계	1,107		합계	502	

8) 대표자 성별

대표자 성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도별 변동이 크지 않아 2021년을 대표로 살펴보았다. 벤처이력기업과 일반기업 모두 남성 대표자의 비율이 95% 이상으로 높다. 여성 대표자의 비율은 유효벤처기업이 4.2%, 일반기업이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 대표자 성별 현황('21년도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상장기업(A=B+C)	1,488	1,441	47
일반기업(B)	387	372	15
벤처기업			
벤처이력기업(C)	1,101	1,069	32
유효벤처기업(D)	499	478	21

* 16개 기업은 대표자 성별 파악이 불가함

4. 재무현황

1) 수익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경우 2017년~2019년까지는 '벤처이력기업'이 높았으나, 2020년~2021년은 '일반기업'이 소폭 앞서 2021년 기준 각각 6.6%, 6.8%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은 '벤처이력기업'이 5.9%로 '일반기업'보다 0.1%p 높았다.

[표 13] 매출액 영업이익률 현황

(단위 :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 (A=B+C)	매출액 영업이익률	6.2%	5.4%	5.1%	6.0%	6.8%
	영업이익	7.8	7.1	7.0	8.7	11.5
일반기업(B)	매출액	125.4	129.7	138.9	145.5	168.5
	매출액 영업이익률	5.9%	5.3%	4.8%	6.1%	6.8%
벤처이력기업 (C)	영업이익	2.8	2.6	2.6	3.4	4.6
	매출액	46.7	49.3	54.2	55.2	64.5
벤처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6.4%	5.5%	5.2%	5.9%	6.6%
	영업이익	5.0	4.5	4.4	5.3	6.9
유효벤처기업 (D)	매출액	78.7	80.4	84.7	90.4	104.0
	매출액 영업이익률	7.0%	5.8%	3.9%	5.1%	3.1%
	영업이익	1.2	1.1	0.8	0.9	0.7
	매출액	16.5	19.0	19.4	18.7	22.0

*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2) 안정성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일반기업'(6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유효벤처기업'(49.0%) 및 '벤처이력기업'(56.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4] 부채비율

(단위 :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근 5년 평균
전체 상장기업 (A=B+C)	부채비율	58.1%	58.2%	60.2%	58.3%	58.7%	58.7%
	부채	60.9	68.3	76.5	83.4	99.2	77.7
	자본	104.8	117.3	127.2	143.0	168.9	132.2
일반기업(B)	부채비율	61.4%	64.0%	65.1%	64.0%	64.4%	63.8%
	부채	21.5	24.9	27.2	29.5	34.4	27.5
	자본	35.0	38.9	41.7	46.1	53.5	43.0
벤처이력기업 (C)	부채비율	56.4%	55.3%	57.8%	55.6%	56.1%	56.2%
	부채	39.4	43.4	49.4	53.9	64.8	50.2
	자본	69.8	78.5	85.5	96.9	115.4	89.2
벤처기업	부채비율	47.3%	50.6%	53.0%	45.7%	48.3%	49.0%
	부채	8.7	11.4	13.1	12.4	16.2	12.4
	자본	18.4	22.6	24.8	27.0	33.6	25.3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또한, 자산 대비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의 최근 5년 평균은 '유효벤처기업'이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벤처이력기업' 64.0%, '일반기업' 6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기자본비율

(단위 :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근 5년 평균
전체 상장기업 (A=B+C)	자기자본 비율	63.3%	63.2%	62.4%	63.2%	63.0%	63.0%
	자본	104.8	117.3	127.2	143.0	168.9	132.2
	자산	165.7	185.6	203.8	226.4	268.1	209.9
일반기업(B)	자기자본 비율	62.0%	61.0%	60.6%	61.0%	60.8%	61.1%
	자본	35.0	38.9	41.7	46.1	53.5	43.0
	자산	56.4	63.7	68.9	75.6	87.9	70.5
벤처기업	자기자본 비율	63.9%	64.4%	63.4%	64.3%	64.1%	64.0%
	자본	69.8	78.5	85.5	96.9	115.4	89.2
	자산	109.3	121.9	134.9	150.8	180.2	139.4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근 5년 평균	
벤처 기업	유효벤처기업 (D)	자기자본 비율	67.9%	66.4%	65.4%	68.6%	67.4%	67.1%
		자본	18.4	22.6	24.8	27.0	33.6	25.3
		자산	27.2	34.0	37.9	39.4	49.8	37.7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은 '21년말 기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효벤처기업'(17.8%), '일반기업'(16.9%), '벤처이력기업'(1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벤처이력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매출액 증가율 현황

(단위 :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A=B+C)	매출액 증가율	-	3.4%	7.1%	4.8%	15.8%	
	매출액	125.4	129.7	138.9	145.5	168.5	
일반기업(B)	매출액 증가율	-	5.6%	10.0%	1.8%	16.9%	
	매출액	46.7	49.3	54.2	55.2	64.5	
벤처 기업	벤처이력기업 (C)	매출액 증가율	-	2.1%	5.3%	6.7%	15.1%
		매출액	78.7	80.4	84.7	90.4	104.0
	유효벤처기업 (D)	매출액 증가율	-	15.2%	1.8%	-3.6%	17.8%
		매출액	16.5	19.0	19.4	18.7	22.0

* 매출액증가율 = (당해연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5. 연구개발 현황

1) 지식재산권 등록

지식재산권 수는 '벤처이력기업'이 평균 57.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업'이 39.6건으로 가장 적었다.

[표 17] 평균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A=B+C)	46.4	48.8	49.7	51.3	52.4	
일반기업(B)	33.2	39.8	39.0	40.1	39.6	
벤처 기업	벤처이력기업 (C)	51.0	51.8	53.3	55.3	57.0
	유효벤처기업 (D)	44.2	43.3	41.7	42.3	41.6

* 평균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수/기업 수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은 '유효벤처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유효벤처기업' 8.0%, '벤처이력기업' 3.9%, '일반기업' 1.1% 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상장기업(A=B+C)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4%	2.5%	2.7%	3.2%	2.8%
	연구개발비	29.8	3.3	3.8	4.6	4.8
	매출액	125.4	129.7	138.9	145.5	168.5
일반기업(B)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1.0%	1.1%	1.2%	1.1%
	연구개발비	0.5	0.5	0.6	0.7	0.7
	매출액	46.7	49.3	54.2	55.2	64.5
벤처이력기업 (C)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2%	3.5%	3.8%	4.4%	3.9%
	연구개발비	2.5	2.8	3.2	4.0	4.0
	매출액	78.7	80.4	84.7	90.4	104.0
벤처 기업 유효벤처기업 (D)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6.1%	6.3%	7.4%	10.1%	8.0%
	연구개발비	1.0	1.2	1.4	1.9	1.8
	매출액	16.5	19.0	19.4	18.7	22.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매출액)×100

6. 마치며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속에서 벤처확인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 상장기업 중 해당연도 '유효벤처기업' 수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나, '벤처이력기업'의 경우 전체의 70%를 넘을 정도로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1년도 말 '벤처이력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323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441조원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21년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의 확인유형은 연구개발유형(32.3%), 벤처투자유형(20.3%)이 많았고, 전체 벤처기업의 확인유형별 비율인 연구개발유형(11.7%), 벤처투자유형(10.5%)과 비교하면 연구개발유형과 벤처투자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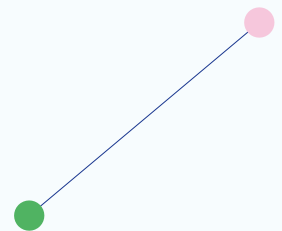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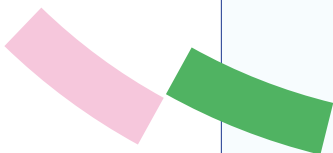
수도권에 소재한 상장기업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율이 증가('17년 71% → '21년 74%)하고 있으며,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기업 수 비율이 각각 77%, 75%로, 일반기업(71%)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도 말 기준,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업력은 각각 17.5년과 22.2년으로 '일반기업'의 업력 평균(26.2년)보다 짧았고,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상장까지 소요기간(각 10.7년)이 '일반기업'(12.8년) 보다 짧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대분류 기준으로 '21년 업종현황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효벤처기업'(66.9%)과 '벤처이력기업'(66.7%)이 '일반기업'(49.6%)에 비해 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효벤처기업'과 '벤처이력기업'의 경우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기업'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 가장 낮고('21년 기준 49.0%),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높았고('21년 기준 67.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21년 기준 8.0%)이 높게 나타나, 재무 안정성이 높고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이력기업'의 지식재산권 평균 등록 건수도 '21년 기준 57.0건으로 '일반기업'(39.6건)에 비해 기업당 평균 17.4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의 특성

Vol. 1
2022. 10

발행처 벤처기업확인기관
발행일 2022년 10월
주소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전화 02-6009-9636

본 자료는 벤처기업확인기관 홈페이지
(www.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